

# 콩쥐 팥쥐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이 부부에겐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지만 정성껏 기도 끝에 예쁜 딸을 얻게 되었죠. 부부는 여문 콩처럼 옹골지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딸의 이름을 콩쥐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콩쥐엄마는 콩쥐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콩쥐 아버지는 갓난아이를 안고 엉엉 울었죠. 다행히 콩쥐를 무럭무럭 잘 자라요. 마음씨도 어찌나 고운지 ... 마을에서 콩쥐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콩쥐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데리고 와요. 새어머니는 욕심이 많고 성질이 사나웠죠. 그리고 팥쥐라는 딸도 데리고 왔어요. 나이는 콩쥐보다 한살 어렸지만 제 엄마를 닮아 심술궂고 마음씨도 고약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 앞에서는 콩쥐에게 잘해주고 아버지가 없으면 콩쥐를 괴롭혔어요. 새어머니가 콩쥐를 괴롭힐때마다 팥쥐도 옆에서 덩달아 거들곤 했죠. 그럴때마다 콩쥐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남몰래 눈물짓곤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 앞에서는 콩쥐에게 잘해주고 아버지가 없으면 콩쥐를 괴롭혔어요. 새어머니가 콩쥐를 괴롭힐때마다 팥쥐도 옆에서 덩달아 거들곤 했죠. 그럴때마다 콩쥐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남몰래 눈물짓곤 했습니다.

어느날 새어머니는 콩쥐와 팥쥐에게 일을 시켰어요. "콩쥐는 언니니까 산 너머 자갈밭을 매고 팥쥐는 동생이니까 집 앞 모래밭의 풀을 뽑아라!". 그러면서 콩쥐한테는 나무 호미를 주고 팥쥐한테는 쇠 호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다 하지 못하면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말을 했어요. 누워서 떡먹기 처럼 쉬운 일을 맡은 팥쥐는 금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콩쥐는 나무 호미로 자갈밭을 땀어요 그런데 이일을 어찌죠? 그만 나무 호미가 툭~ 부러지고 말았어요. 콩쥐는 눈물이 그렁그렁 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음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소 한마리가 나타나는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그 검은소는 눈깜짝할 사이에 자갈밭을 매 주었어요. 덕분에 콩쥐는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새 원님을 맞이하는 잔치가 열렸어요. 새어머니는 팔쥐랑 이른 아침부터 예쁘게 꾸미느라 호들갑을 떨었죠. 그러면서 콩쥐를 보며 말을 해요 "콩쥐야, 잔칫집에 오려거든 옷감 다섯 필을 짜고, 벼 다섯 섬을 찢어 놓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뒤에 오려무냐!". 그러고는 팔쥐만 데리고 행하니 가버렸답니다.

"이 많은 일을 언제 다하지?" 콩쥐는 주르르 눈물만 흘렸어요. 그때 어디선가 구슬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에서 선녀가 나풀나풀 내려오는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옷감 다섯 필을 순식간에 짜주고 콩쥐에게 고운 비단옷과 꽃신까지 주고 갔답니다.

콩쥐가 멍석에 널린 벼를 보며 한숨을 짓고 있을때, 그때 참새 떼가 날아오더니 벼를 부리로 콕콕 쪼아 벼 다섯 섬을 금세 까 주는게 아니겠어요? "이제 항아리에 물만 채우면 되는구나" 콩쥐는 샘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무리 부어도 부어도 항아리가 차지 않는 거예요. 알고보니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뽕뚫려 있지 뭐예요. "흑흑~ 이제 어떡하지?" 그때 어디선가 두꺼비 한 마리가 풀쩍풀쩍 뛰어오더니 제 몸으로 구멍을 막아주는게 아니겠어요? 그덕에 콩쥐는 물을 가득 채울수가 있었답니다.

새어머니가 시킨 일을 모두 마친 콩쥐는 비단옷에 꽃신을 신고 집을 나서요. 콩쥐가 마을을 벗어나 개울을 거의 다 건넌을때, "에구머니나" 콩쥐는 그만 꽃신 한 짝을 개울물에 빠트리곤 말았어요. 비단 꽃신은 둥실둥실 떠내려갔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원님이 꽃신을 보게되었어요. "참으로 곱고 귀한 꽃신이구나. 여봐라, 이 꽃신의 주인을 찾아오너라!" 비단꽃신의 임자를 찾는다는 방이 붙었어요. 마을 처녀들은 너도나도 꽃신을 신어 보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아무도 신발이 꼭 맞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새어머니도 팔쥐에게 꽃신을 신기려고 했지만 맞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이방이 콩쥐에게 말해요 "처녀도 이리워서 신어보시오!" 콩쥐는

꽃신을 건네받고 버선을 신듯이 가볍게 발을 넣었어요. 그순간 이방은 깜짝 놀랐답니다. "맞춘 듯이 발에 꼭 맞네그려! 꼭 맞아" 새어머니와 팔쥐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어요. 콩쥐는 잔칫날 입었던 고운 옷을 꺼내 입고 비단 꽃신 한 짝을 마저 찾아 신었어요. 그러고는 원님에게 사뿐사뿐 나아갔죠 원님은 그런 콩쥐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답니다. "오, 참으로 고운 처녀로다! 내 색시가 되어 주겠소?" 원님의 말에 콩쥐는 얼굴을 살짝 붉혔어요. 콩쥐는 새어머니와 팔쥐를 용서하고 원님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